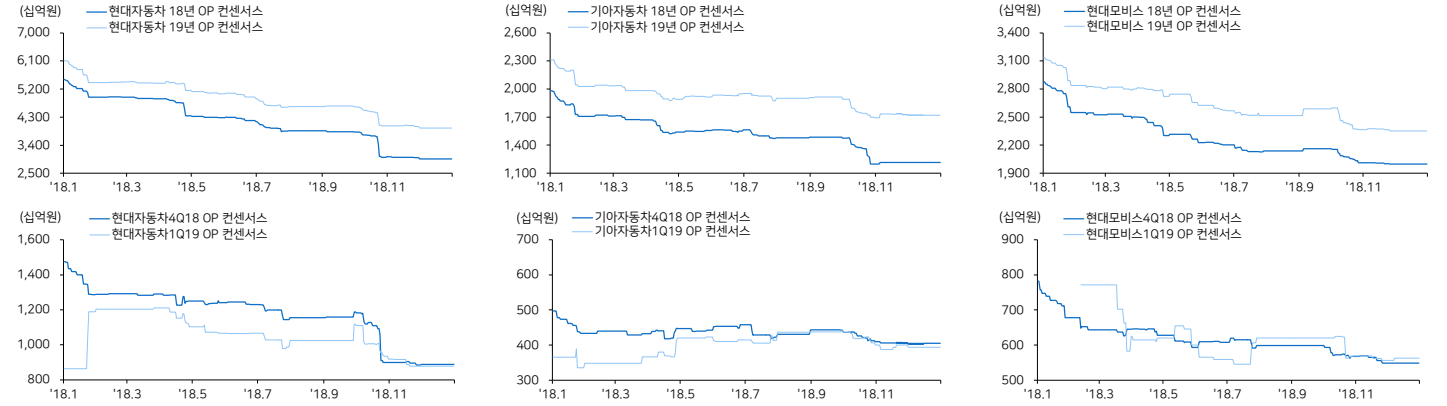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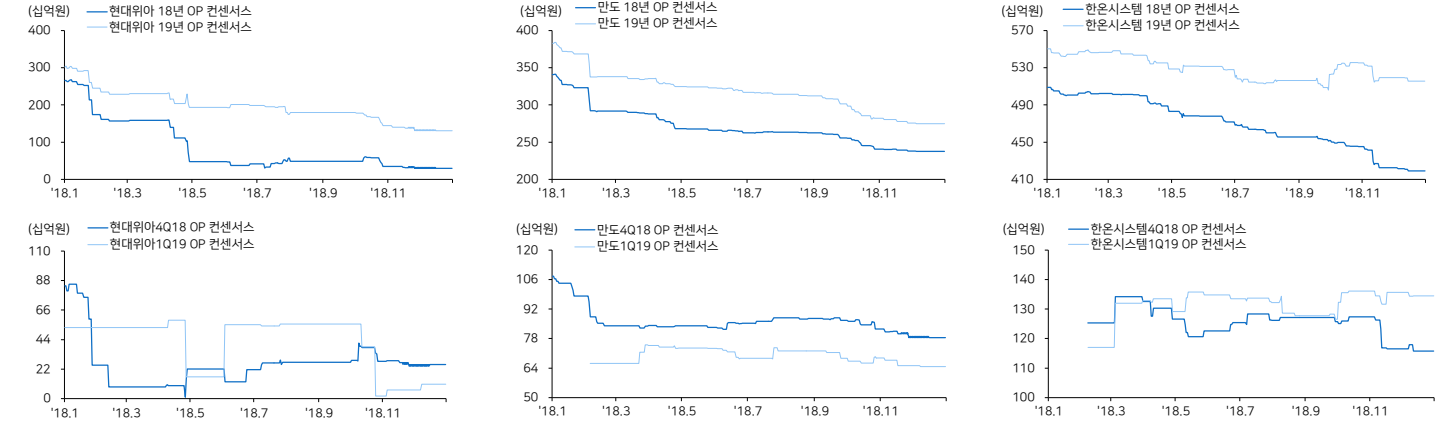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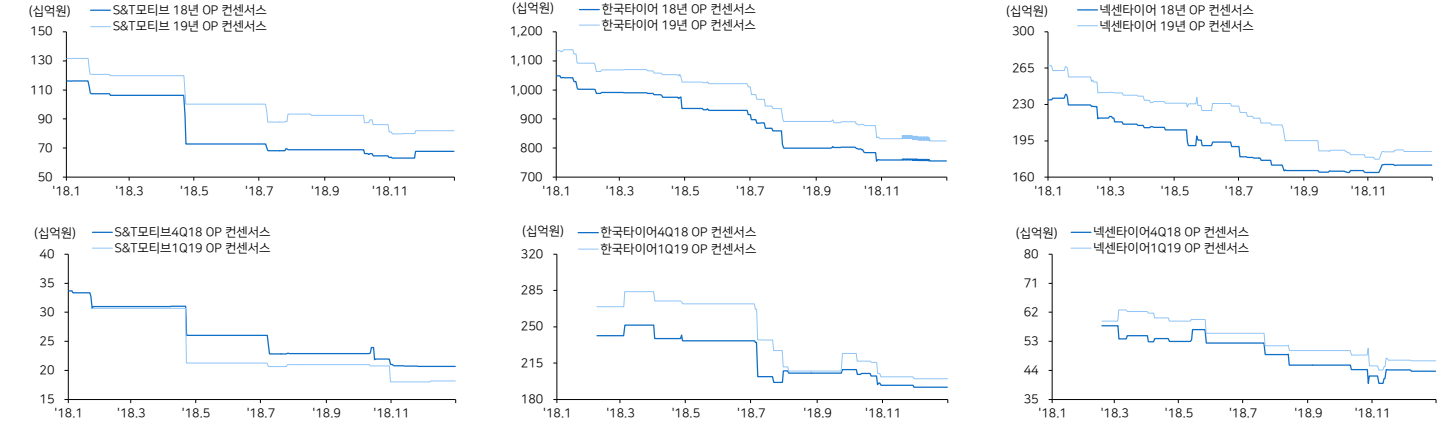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운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현대·기아차, 스마트 자율주행 콘셉트 공개 (로봇신문)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목적지에서 하차하면 차량이 스스로 빈 충전공간을 찾아 들어가 무선으로 충전되는 내용의 자율주행 콘셉트 영상을 공개. 현대차는 2025년경 자율주행 기능 적용을 검토중. <https://bit.ly/2LkEeSk>

현대자동차,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 (전자신문)

현대차가 예상 올해 하반기부터 특정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양산에 들어감. 현대차그룹은 올해 개발을 끝내고, 외부 업체와 솔루션 개발 협력도 마무리하기로 함. 정부 역시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안과 안전 기준을 마련. <https://bit.ly/2BRBZEb>

'펠리세이드' 없어서 못 파다... 현대차, 새에 협찬 날갯짓 (부산일보)

현대차가 예상 올해 하반기부터 특정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양산에 들어감. 현대차그룹은 올해 개발을 끝내고, 외부 업체와 솔루션 개발 협력도 마무리하기로 함. 정부 역시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안과 안전 기준을 마련. <https://bit.ly/2AA7m6H>

기술선·디젤 차량 글로벌 판매 올해가 정점...전기차 대체 빨라진다 (아주경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기차의 부상이 가속화할 전망. 중국, 미국, EU 등 세계 3대 자동차시장에서 기술선·디젤 차량 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자동차업체들이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https://bit.ly/2Qc9WEN>

현대·기아차, 신차 출격 준비...`V자 회복` 원인으로 (매일경제)

현대·기아차는 올해 중반급 신차들을 앞세워 재도약에 나선. 현대·제네시스·기아 3개 브랜드 모두 SUV 라인업을 보강. 글로벌 판매와 수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2019년을 `V자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https://bit.ly/2QZPkEQ>

현대차, 지난해 인도서 들쭉...SUV 만 11만 3700여대 판매 (글로벌이코노믹)

현대차가 지난해 말부터 인도에서 들쭉을 일으키고 있음. 일본의 스즈키마루티가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한 인도시장에서 현대차는 SUV, 해치백, 세단 등의 차종을 각각 10만 대 이상 판매하는 괴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bit.ly/2CK10YE>

중·친환경차 의무판매 시점...`현대차 범금 1조원 몰수도` (동아일보)

올해부터 완성차 업체는 중국 내 차량 판매 시 판매량의 약 10%를 친환경차로 채우지 못하면 타회사로부터 크레디트를 사야 함. 현대·기아차의 2018년 중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으로 계산하면 약 1000억 원 이상의 범금을 낼 수 있음. <https://bit.ly/2LL09ER>

미국 화물차 관세 25% 20년 연장·안전기준 인경 5만대로 강화 (에너지데일리)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2018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 25% 철폐 기간이 현재의 2021년 1월 10년차 절점에서 추가 20년이 연장돼 오는 2041년 1월1일에 철폐됨. <https://bit.ly/2BW6uJ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 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1월 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1월 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준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